기독교 여대생의 성인애착유형과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

이혜진 교수

(Ed.D., 성결대학교)

유은정 교수

(Ed.D., 백석문화대학)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와 가톨릭을 종교로 가진 여대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표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하나님의 표상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인애착유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권 대학교 5개 대학을 선정하여 1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기독교 여대생들의 성인애착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기독교 여대생들의 하나님 표상은 어떠한가? 셋째, 기독교 여대생들의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하나님 표상은 어떠한가를 선정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인애착으로는 안정형이 가장 많았으며, 하나님 표상은 신앙생활의 연수와 부모님의 신앙여부, 회개경험, 구원확신, 예배참석 횟수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기독교 여대생의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하나님 표상을 살펴본 결과, 거부-회피형이 다른 유형보다 현존과 도전-안정형이 다른 유형보다 용납과 긍휼, 그리고 승인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에게 성인의 애착유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기독교 대학생을 상담할 경우 성인애착유형과 하나님 표상의 관계성을 검토하여 왜곡된 하나님 표상을 가진 학생들에게 안정된 애착을 유도하는 작업이 유용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이 제시되었다.

중심단어 : 기독교 여대생, 애착, 성인애착유형, 하나님 표상, 기독교 상담

I. 여는 글

오늘날 다양한 상담 및 심리치료 학파들은 그들의 이론과 기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한 개인의 성격과 정신병리의 발달에 어린 시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는데 동의한다.[1] 즉 내담자가 현재 상담에서 보이는 문제의 대부분은 내담자의 발달사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전 생애 발달과 상담영역 사이의 중요한 개념적 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애착 이론이 있다.[2]

애착(Attachment)이란 Bowlby가 한 인간이 가까운 사람들과 맺고 있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로, 영아-양육자 상호작용과 사회적 발달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다.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개인이 갖는 애착의 질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내적 표상을 가지게 되고, 이후 양육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에서도 일반화되어 작용한다. 즉 성인애착은 생애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내적 표상의 형태로 내재화된 것으로, 성인애착은 쌍방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 선호하는 특정인에게 근접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라 할 수 있겠다.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는 Parkes가 성인이 사별이나 이별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영아의 애착과 유사한 것이 나타난다고 밝힌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3] 이후 Bowlby가 애착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성인용 애착측정도구가 개발되었고, 애착유형에 대한 연구 등이 이어졌다.[4] 특히, Brennan, Clark 그리고 Shaver는 최근에 성인애착이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차원인 애착불안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가까움과 의존에 대한 불편함 차원인 애착회피라는 독립적인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5] 애착불안 차원은 자기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지각되는 정도, 타인의 거절과 내버려짐에 대해 불안해하는 정도를 나타냄으로 자기표상의 차원과 관련된다. 그리고 애착회피차원은 개인이 타인을 반응하는 존재로 지각하는 정도,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에게 의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편안한 정도를 나타냄으로 타인표상의 차원과 관련된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조합에 따라 안정형, 집착형, 거부형, 두려움형으로 나뉘게 된다. 최근 연구들에서 이러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차원이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예측하고[6], 대인관계 어려움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7]

Bowlby는 성인애착은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형태로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내적 작동 모델을 관계, 사회적 경험, 자기이해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무의식적 해석 필터이자, 타인과 자신에 대한 기대를 확증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행동들에 대한 암묵적 결정 규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애착은 인지적 표상의 형태로 내면화되고, 내면화된 인지적 표상은 정보처리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선택적 주의집중, 인지적 개방성, 사회적 정보에 대한 해석 편향, 기억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8] 이러한 인지적 편향의 차이는 개인의 애착 유형을 다시 강화하게 된다. 국내 연구에서도 애착유형에 따른 상이한 인지적 특성이 보고되고 있다.[9]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들의 경험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각 개인의 느낌이라 할 수 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은 실제로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존재하는 분이다.[10] Rizzuto는 대상표상과 자기표상이 기본적으로 여러 발달수준에서 대상과 관련해 경험한 결과들이 통합된 복합적인 기억이라고 정의하고, 하나님표상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최초의 경험이 초기 어머니-자녀 관계에서의 반영이라고 보았다.[11] 아이가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자신의 경험에 연결시킬 수 있게 될 때, 그 관계를 설명할 자원으로서 어머니와의 반영단계에서의 경험을 활용하게 된다.[12]

사고(Thinking)란 현재의 상황에서 이미 획득한 기억체계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과정과 지적 체재인 개념조작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 사고과정의 중심은 개념판단과 추리의 작용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고는 하나님의 본성, 역사 안에서 인간들과의 관계, 인간들의 행위, 성서와 예수를 통하여 제시되어진 것을 향한 사고로서, 종교적 사고를 이루는 개념은 하나님의 본성, 활동, 신성성, 사랑, 정의, 인간과의 상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표상은 개념과 다르다.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 사고하고 그리는 상(象)이 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개념과 다르다. 하나님 개념이 사고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지적 체계라면, 개인이 그리는 하나님 상이란 삶의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운 것, 경험, 기억, 느낌의 총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나 사람들이 그리는 하나님 상은 개인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왜곡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표상으로 정서적 혼란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여기에 있다.[13]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 표상의 형성은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위험과 고난을 통찰하고 삶의 의미를 재해석 하도록 도와주며 세상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올바른 하나님 표상은 내적인 자유를 촉진시키고 인간들 간의 참 만남과 인간들 간의 신뢰를 강화시키는 선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선한 세상과 만나도록 도와준다.

Stephens는 하나님 표상을 형성하는 요인이 부모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생애 초기에 부모와 관련되어 일어났던 관계양상과 경험들은 개인의 종교경험과 하나님 표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어머니'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각 개인의 어머니에 대한 실제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지만 '하나님'이란 단어의 이미지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주로 일차적 양육자인 부모와 관련된 기억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나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표상은 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래의 하나님의 모습에서 왜곡되어 질 수도 있다. 또한 새로운 경험에 의해 자유롭게 재형성 될 수도 있다. 하나님 표상의 단계는 0-2세의 생애 초기에는 어머니와 심리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실제적인 미분화 상태로서 최초의 하나님 표상은 충분히 좋은 어머니, 유아가 소망하는 좋은 어머니로부터 만들어진다. 2-3세경의 초기 분화 단계의 하나님 표상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합되어 있으나 3세 후반부터 6세경에는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이 통합되고 높은 수준의 심리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의 하나님 표상은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람 즉 부모와 관련하여 하나님을 상상하며 점차적으로 아버지의 특성들을 많이 갖게 된다. 만일 아버지가 엄하고 공격적이라면 어린이가 그리는 하나님 표상은 그러한 특성들을 포함하게 된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하나님과 부모와의 차이를 알게 되는 분화의 시기로서 하나님의 표상으로부터 아버지의 상을 분리하게 된다. 청소년기 이후에는

하나님의 표상이 계속 첨가되고 수정되고 변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청소년기가 끝날 무렵에는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이 포함된 하나님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하나님 표상의 중요성은 하나님 표상이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신앙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14]

대학생 시기는 Erikson의 심리 사회적 발달단계 중에서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며, 자아정체감을 완성하는 시기로, 장휘숙[15]은 대학생이 이루어야 할 과업으로 자아정체성의 마무리, 학문, 직업, 경력의 성취, 사랑, 성, 결혼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 후기인 대학생이 되어서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과 함께 정체성을 확립해 간다. 이런 점은 신앙정체성에서도 비슷할 것이다. 이 시기는 생애에서 종교적으로도 매우 활동적인 시기로 자신이 영렬하게 믿을 대상과 이념을 추구하는 시기이므로, 추상적이고 이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통한 지식의 증가로 인생의 근본 문제 및 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며 영원세계를 동경한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 왔던 공등체내의 이야기, 신앙경험, 교육 등에서의 모순점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경험된 하나님 표상을 재확립하고자 한다.[16]. 따라서 대학생의 지도 과정에서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적인 하나님 표상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상담개입이 필요하다.

하나님 표상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하나님 표상과 애착에 관련된 연구가 점차 진행되고 있다. 민저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Edwards와 Brokaw는 하나님 이미지와 대상관계 발달수준 간의 관계를 하나님 이미지 척도와 함께 3개의 대상관계 발달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로샤검사 반응, 자아기능평가척도, 대상관계이해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살펴보았고,[17] deRoose, Miedema & Ledema는 구조화된 질문지와 투사기법 절차를 이용하여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기와 타인, 하나님 개념들을 측정하고 어머니아동, 교사-아동 관계의 질을 측정한 다음, 이들 개념들과 관계들 간의 상관과 영향력의 정도를 탐색하였다. Rowatt와 Kirkpatrick는 하나님 표상에의 애착유형과 정서와 종교성, 성격적 특성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있다.[18] 국내에서도 아동기 성학대 등의 외상적 경험과 하나님 이미지와의 관계,[19] 유아기 심리적 경험과 성인의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20] 애착유형에 따른 하나님 이미지[21]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애착과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와 개인적 적응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22]와 심리치료에서의 종교와 하나님 표상에의 접근을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23]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주로 초기 대상관계에 따른 하나님표상의 형성과정이나 하나님 표상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문헌연구에 그치고 있어 성인애착유형과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성인애착유형과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를 장차 대상관계의 핵심인 어머니가 될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와 가톨릭을 종교로 가진 여대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인애착유형과 하나님표상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기독교 여대생들의 성인애착유형은 어떠한가?
2. 기독교 여대생들의 하나님 표상은 어떠한가?
3. 기독교 여대생들의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하나님 표상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에게 성인의 애착유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일어나는 내담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내담자들의 애착유형에 맞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기독교 대학생을

상담할 경우 성인애착유형과 하나님 표상의 관계성을 검토하여 왜곡된 하나님 표상을 가진 학생들에게 안정된 애착을 유도하는 작업이 유용함을 시사한다. 이는 곧 왜곡된 하나님 표상을 가진 학생들에게 자신의 애착형태를 인식시킴으로써 애착불안이나 애착회피의 유형을 안정애착유형으로 발전시키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과 삶의 태도 등을 교정하여 건강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II. 펴는 글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와 충청도에 소재한 5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여자 대학생 총 185명이다. 2006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본 연구자들이 담당하는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본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분에서 2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185명 중 학년별로는 1학년이 5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3학년 21.1%, 4학년 20.5%, 2학년 8.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년	1학년	93	50.3
	2학년	15	8.1
	3학년	39	21.1
	4학년	38	20.5
신앙년수	모태신앙	83	44.9
	5년 이하	43	23.2
	6-10년 미만	18	9.7
	10년 이상	41	22.2
부 모 님 신앙여부	모두 믿음	112	60.5
	아버지만 믿음	5	2.7
	어머니만 믿음	33	17.8
	모두 안믿음	35	18.9
회개경험	있다	138	74.6
	없다	47	25.4
구원확신	있다	138	74.6
	없다	47	25.4
예배참석	거의 안함	21	11.4
	월 1~3회	21	11.4
	월 4~8회	90	48.6
	월 9회 이상	53	28.6
계		185	100.0

신앙년수별로는 모태신앙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년 이하 23.2%, 10년 이상 22.2%, 6-10년 미만 9.7%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신앙여부별로는 부모님 모두 믿는 학생이 60.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어머니만 믿음 17.8%, 모두 안믿음 18.9%, 아버지만 믿음 2.7%

순이었다. 회개 경험별로는 회개 경험이 있는 학생이 74.6%로 그렇지 않은 학생 25.4%보다 많았다. 구원확신 여부별로는 구원확신이 있는 학생이 74.6%로 그렇지 않은 학생 25.4%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예배참석별로는 월 4~8회가 4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월 9회 이상 28.6%, 월 1~3회와 거의 하지 않는 학생이 각각 11.4%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성인애착유형

성인애착유형척도는 애착논점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평가하려는 애착대상이나 접근방식에 따라 상이하므로 연구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맞게 성인애착의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검사인 Brennan(2000)의 ECR-R(Experience of relationship-R)을 김성현이 번안하고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통하여 타당화한 친밀관계 경험 검사를 사용하였다.[24] ECR-R은 모두 36문항이며 불안 하위척도 18문항, 회피 하위척도 18문항이며 김성현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각각 .89, .85이다

또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조합에 따라 애착유형 분류하였다. 기준점을 평균으로 하여,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모두 평균보다 낮으면 안정형, 애착회피는 평균보다 낮고, 애착불안이 평균보다 높으면 집착형, 애착회피는 평균보다 높고 애착불안이 평균보다 낮으면 거부 회피형,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평균보다 모두 높으면 두려움 회피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님 표상

하나님 표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나예[25]가 개발한 '하나님 표상 측정도

구'(God Image Assesment, GIA)를 사용하였다. GIA는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방식으로 평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도구이다. GIA는 자아상과 타인과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인 소속감(belonging), 승인감(goodnees), 통제감(feeling of control)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두 개의 하위 요인이 있고 각 영역이 첫 번째 요인은 자아에, 두 번째 요인은 관계에 초점이 있다.

소속감은 임재(Presence)와 도전(Challenge)으로, 임재척도는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가?"를 측정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또는 내가 나의 주변세계로 나아가 관계하는 것을 지지하거나 요구하는 것이다. 도전척도는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나가 더 도전 받기를 원하는가?"를 측정하고 있다. 이는 자신과 세상을 탐색하고 세상과 자신에 대해 도전하며 발전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

승인감은 용납(Acceptance)과 긍휼(Benevolence)로, 용납척도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존재인가?"를 측정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얼마나 수용의 경험을 가졌는가에 따라 다르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용납되는가에 따라 측정된다. 긍휼척도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원하시는가?"를 측정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통제감은 영향력(Influence)과 섭리(Providence)로 영향력척도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측정한다. 이는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며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능동태를 나타내고 있다. 섭리척도는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통제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에 의해 통제를 당하는 것이며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수동태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onbach α 가 성인애착 0.81, 하나님 표상 0.97로, 모두

0.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

구분			문항 수	Alpha
성인애착		애착불안	18	0.75
		애착회피	18	0.71
		성인애착	36	0.81
하나님 표상	소속감	현존	10	0.92
		도전	10	0.85
		소속감	20	0.93
	승인감	용납	10	0.77
		긍휼	10	0.83
		승인감	20	0.86
	통제감	영향력	10	0.88
		섭리	10	0.91
		통제감	20	0.94
		하나님 표상	60	0.97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기독교 여대생의 성인애착유형과 하나님 표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χ^2(Chi-square) 검증과 t-test(검증), 그리고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하나님 표상을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기독교 여대생의 성인애착유형

연구문제1. 기독교 여대생들의 성인애착유형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Chi-square) 검증과 t-test(검증), 그리고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3>과 같이 성인애착유형으로 안정형인 학생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두려움 회피형 27.6%, 거부 회피형 21.1%, 집착형 17.8%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성인애착유형으로 안정형이 많았고, 3학년은 다른 학년보다 두려움 회피형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신앙년수별로는 5년 이하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성인애착유형으로 두려움 회피형이 많았고, 6~10년 미만인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안정형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님 신앙 여부별로는 부모님 모두 믿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성인애착유형으로 두려움 회피형이 많았고, 부모님 모두 믿지 않는 학생은 믿는 학생보다 안정형이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회개 경험별로는 회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성인애착유형으로 거부 회피형과 두려움 회피형이 많았고, 회개 경험이 없는 학생은

있는 학생보다 안정형이 많았으나 회개 경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구원확신별로는 구원확신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성인애착유형으로 안정형과 거부회피형이 많았고, 구원확신이 없는 학생은 구원확신이 있는 학생보다 두려움 회피형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기독교 여대생의 성인애착유형

구 분		안정형	집착형	거부 회피형	두려움 회피형	계	x^2 (df)	p
학년	1학년	32 (34.4)	20 (21.5)	19 (20.4)	22 (23.7)	93 (50.3)	5.11 (9)	0.825
	2학년	6 (40.0)	3 (20.0)	2 (13.3)	4 (26.7)	15 (8.1)		
	3학년	14 (35.9)	4 (10.3)	8 (20.5)	13 (33.3)	39 (21.1)		
	4학년	10 (26.3)	6 (15.8)	10 (26.3)	12 (31.6)	38 (20.5)		
전공	유아교육전공	49 (37.1)	26 (19.7)	27 (20.5)	30 (22.7)	132 (71.4)	6.68 (3)	0.083
	비유아교육 전공	13 (24.5)	7 (13.2)	12 (22.6)	21 (39.6)	53 (28.6)		
신앙 년수	모태신앙	22 (26.5)	17 (20.5)	22 (26.5)	22 (26.5)	83 (44.9)	14.11 (9)	0.119
	5년 이하	13 (30.2)	10 (23.3)	7 (16.3)	13 (30.2)	43 (23.2)		
	6-10년 미만	11 (61.1)	1 (5.6)	4 (22.2)	2 (11.1)	18 (9.7)		
	10년 이상	16 (39.0)	5 (12.2)	6 (14.6)	14 (34.1)	41 (22.2)		
부모님 신앙 여부	모두 믿음	30 (26.8)	24 (21.4)	26 (23.2)	32 (28.6)	112 (60.5)	6.72 (6)	0.348
	두분 중 한 분만 믿음	16 (42.1)	5 (13.2)	7 (18.4)	10 (26.3)	38 (20.5)		
	모두 안 믿음	16 (45.7)	4 (11.4)	6 (17.1)	9 (25.7)	35 (18.9)		

회개 경험	있다	42 (30.4)	25 (18.1)	31 (22.5)	40 (29.0)	138 (74.6)	2.45 (3)	0.485
	없다	20 (42.6)	8 (17.0)	8 (17.0)	11 (23.4)	47 (25.4)		
구원 확신	있다	47 (34.1)	24 (17.4)	33 (23.9)	34 (24.6)	138 (74.6)	3.87 (3)	0.276
	없다	15 (31.9)	9 (19.1)	6 (12.8)	17 (36.2)	47 (25.4)		
예배 참석	거의 안함	6 (28.6)	2 (9.5)	2 (9.5)	11 (52.4)	21 (11.4)	14.72 (9)	0.099
	월 1~3회	7 (33.3)	3 (14.3)	4 (19.0)	7 (33.3)	21 (11.4)		
	월 4~8회	36 (40.0)	18 (20.0)	16 (17.8)	20 (22.2)	90 (48.6)		
	월 9회 이상	13 (24.5)	10 (18.9)	17 (32.1)	13 (24.5)	53 (28.6)		
	계	62 (33.5)	33 (17.8)	39 (21.1)	51 (27.6)	185 (100.0)		

예배참석 정도별로는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 학생이 참석하는 학생보다 성인애착유형으로 두려움 회피형이 많았고, 월 4~8회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안정형이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기독교 여대생들은 성인애착유형으로 안정형이 가장 많았으며, 학년과 전공, 신앙년수, 부모님 신앙 여부, 회개 경험, 구원확신, 그리고 예배참석 정도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기독교 여대생의 하나님 표상

연구문제 2. 기독교 여대생들의 하나님 표상은 어떠한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신앙년수와 부모님의 신앙여부, 회개경험, 구원확신, 예배참석 횟수 등을

대상으로 χ^2(Chi-square) 검증과 t-test(검증), 그리고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앙년수에 따른 하나님 표상

기독교 여대생의 신앙년수에 따라 하나님 표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현존과 도전, 소속감은 모태신앙인 학생이 가장 높았고, 6-10년 미만인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낮았으며, 신앙년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4> 신앙년수에 따른 하나님 표상

구 분		모태신앙 (n=83)		5년 이하 (n=43)		6-10년 미만 (n=18)		10년 이상 (n=41)		전 체 (n=185)		F	p	Scheffe
		M	SD	M	SD	M	SD	M	SD	M	SD			
소속감	현존	3.81	0.77	3.43	0.78	3.16	0.80	3.65	0.65	3.62	0.78	5.01**	0.002	①-③
	도전	4.10	0.60	3.75	0.62	3.51	0.76	4.00	0.58	3.94	0.64	6.21***	0.000	①-② ①-③
	소속감	3.95	0.64	3.59	0.64	3.33	0.75	3.83	0.59	3.78	0.67	6.28***	0.000	①-② ①-③
승인감	용납	3.88	0.61	3.80	0.62	3.92	0.56	3.76	0.55	3.84	0.59	0.54	0.657	-
	긍휼	4.08	0.55	3.91	0.55	3.56	0.65	4.01	0.54	3.98	0.57	4.50**	0.005	①-③ ③-④
	승인감	3.98	0.52	3.86	0.55	3.74	0.52	3.89	0.44	3.91	0.51	1.36	0.257	-
통제감	영향력	3.76	0.63	3.42	0.75	3.28	0.79	3.72	0.67	3.63	0.70	4.14**	0.007	①-③
	섭리	3.94	0.73	3.59	0.84	3.18	0.81	3.80	0.73	3.75	0.79	5.66**	0.001	①-③ ③-④
	통제감	3.85	0.65	3.51	0.77	3.23	0.77	3.76	0.65	3.69	0.71	5.25**	0.002	①-③
하나님 표상		3.93	0.56	3.65	0.61	3.44	0.63	3.82	0.50	3.79	0.59	4.84**	0.003	①-③

** p<.01, *** p<.001

용납은 6-10년 미만인 학생이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긍휼은 모태신앙인 학생이 가장 높았고, 6-10년 미만인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승인감은 모태신앙인 학생이 가장 높았고, 6-10년 미만인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낮았으나 신앙년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영향력과 섭리, 통제감은 모태신앙인 학생이 가장 높았고, 6-10년 미만인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표상은 모태신앙인 학생이 가장 높았고, 6-10년 미만인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낮았으며, 신앙년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 부모님 신앙 여부에 따른 하나님 표상

기독교 여대생의 부모님 신앙 여부에 따라 하나님 표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현존과 도전은 부모님 두분 모두 믿는 학생이 가장 높았고, 두분 중 한 분만 믿는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속감은 부모님이 모두 믿는 학생이 가장 높았고, 두분 중 한 분만 믿는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낮았으며, 부모님 신앙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용납은 두분 중 한 분만 믿는 학생과 부모님 두분 모두 믿지 않은 학생이 부모님 두분 모두 믿는 학생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긍휼과 승인감은 부모님 두분 모두 믿는 학생이 가장 높았고, 두분 중 한 분만 믿는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낮았으나 부모님 신앙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영향력과 섭리, 통제감은 부모님 두분 모두 믿는 학생이 가장 높았고, 두분 중 한 분만 믿는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 5> 부모님 신앙 여부에 따른 하나님 표상

구 분		모두 믿음 (n=112)		두분 중 한 분만 믿음 (n=38)		모두 안 믿음 (n=35)		전 체 (n=185)		F	p	Scheffe
		M	SD	M	SD	M	SD	M	SD			
소속감	현존	3.72	0.78	3.38	0.71	3.56	0.80	3.62	0.78	2.88	0.059	-
	도전	4.01	0.61	3.75	0.65	3.89	0.69	3.94	0.64	2.56	0.080	-
	소속감	3.87	0.65	3.57	0.64	3.73	0.70	3.78	0.67	3.08*	0.048	-
승인감	용납	3.82	0.57	3.87	0.65	3.87	0.62	3.84	0.59	0.16	0.853	-
	긍휼	4.05	0.56	3.81	0.60	3.93	0.56	3.98	0.57	2.63	0.075	-
	승인감	3.93	0.50	3.84	0.53	3.90	0.54	3.91	0.51	0.47	0.623	-
통제감	영향력	3.73	0.64	3.38	0.72	3.58	0.81	3.63	0.70	3.72*	0.026	①-②
	섭리	3.86	0.73	3.49	0.84	3.69	0.87	3.75	0.79	3.46*	0.034	①-②
	통제감	3.80	0.65	3.43	0.74	3.63	0.81	3.69	0.71	3.92*	0.022	①-②
하나님 표상		3.87	0.56	3.61	0.58	3.75	0.65	3.79	0.59	2.77	0.065	-

* p<.05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표상은 부모님 두분 모두 믿는 학생이 가장 높았고, 두분 중 한 분만 믿는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기독교 여대생의 부모님 신앙 여부에 따라 하나님 표상을 살펴본 결과, 부모님 모두 믿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소속감과 영향, 섭리, 그리고 통제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회개 경험에 따른 하나님 표상

기독교 여대생의 회개 경험에 따라 하나님 표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현존 도전, 소속감, 용납, 긍휼, 승인감, 영향력, 섭리, 통제감은 회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았으며, 회개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표상은 회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표 6> 회개경험에 따른 하나님 표상

구 분		있다 (n=138)		없다 (n=47)		전 체 (n=185)		t	p
		M	SD	M	SD	M	SD		
소속감	현존	3.87	0.68	2.91	0.57	3.62	0.78	8.60***	0.000
	도전	4.12	0.57	3.40	0.55	3.94	0.64	7.51***	0.000
	소속감	3.99	0.58	3.16	0.51	3.78	0.67	8.78***	0.000
승인감	용납	3.90	0.61	3.66	0.52	3.84	0.59	2.41*	0.017
	긍휼	4.12	0.51	3.56	0.56	3.98	0.57	6.43***	0.000
	승인감	4.01	0.50	3.61	0.44	3.91	0.51	4.93***	0.000
통제감	영향력	3.84	0.60	3.01	0.62	3.63	0.70	8.21***	0.000
	섭리	4.01	0.66	3.02	0.68	3.75	0.79	8.66***	0.000
	통제감	3.92	0.59	3.01	0.61	3.69	0.71	8.99***	0.000
하나님 표상		3.97	0.51	3.26	0.45	3.79	0.59	8.47***	0.000

* p<.05, *** p<.001

않은 학생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에서 기독교 여대생의 회개 경험에 따라 하나님 표상을 살펴본 결과, 회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현존과 도전, 소속감, 용납, 긍휼, 승인감, 영향력, 섭리, 통제감, 그리고 하나님 표상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 구원확신에 따른 하나님 표상

기독교 여대생의 구원확신에 따라 하나님 표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구원확신에 따른 하나님 표상

구 분		있다 (n=138)		없다 (n=47)		전 체 (n=185)		t	p
		M	SD	M	SD	M	SD		
소속감	현존	3.91	0.63	2.78	0.51	3.62	0.78	12.38***	0.000
	도전	4.14	0.53	3.34	0.55	3.94	0.64	8.85***	0.000
	소속감	4.03	0.54	3.06	0.44	3.78	0.67	11.03***	0.000
승인감	용납	3.96	0.57	3.49	0.53	3.84	0.59	4.97***	0.000
	긍휼	4.13	0.50	3.53	0.55	3.98	0.57	6.87***	0.000
	승인감	4.04	0.46	3.51	0.44	3.91	0.51	6.89***	0.000
통제감	영향력	3.86	0.59	2.94	0.54	3.63	0.70	9.52***	0.000
	섭리	4.02	0.63	2.98	0.71	3.75	0.79	9.48***	0.000
	통제감	3.94	0.56	2.96	0.60	3.69	0.71	10.16***	0.000
하나님 표상		4.00	0.48	3.17	0.42	3.79	0.59	10.56***	0.000

*** p<.001

현존과 도전, 소속감, 용납, 긍휼, 승인감, 영향력, 섭리, 통제감은 구원확신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표상은 구원확신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았으며, 구원확신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에서 기독교 여대생의 구원확신에 따라 하나님 표상을 살펴본 결과, 구원확신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현존과 도전, 소속감, 용납, 긍휼, 승인감, 영향력, 섭리, 통제감, 그리고 하나님 표상이 높음을 알 수 있다.

5) 예배참석에 따른 하나님 표상

기독교 여대생의 예배참석 정도에 따라 하나님 표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현존과 도전, 소속감, 용납, 긍휼, 승인감, 영향력, 섭리, 통제감은 예배참석 정도가 높을수록 높았으며, 예배참석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표상은 예배참석 정도가 높을수록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에서 기독교 여대생의 예배참석 정도에 따라 하나님 표상을 살펴본 결과, 예배참석 정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현존과 도전, 소속감, 용납, 긍휼, 승인감, 영향력, 섭리, 통제감, 그리고 하나님 표상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기독교 여대생의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하나님 표상

연구문제 3. 기독교 여대생들의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하나님표상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8> 예배참석에 따른 하나님 표상

구 분		거의 안함 (n=21)		월 1~3회 (n=21)		월 4~8회 (n=90)		월 9회 이상 (n=53)		전 체 (n=185)		F	p	Scheffe
		M	SD	M	SD	M	SD	M	SD	M	SD			
소속감	현존	2.73	0.58	3.32	0.56	3.59	0.68	4.15	0.66	3.62	0.78	26.47***	0.000	①-② ①-③ ①-④ ②-④ ③-④
	도전	3.12	0.47	3.69	0.62	3.97	0.56	4.30	0.51	3.94	0.64	25.20***	0.000	①-② ①-③ ①-④ ②-④ ③-④
	소속감	2.92	0.42	3.50	0.55	3.78	0.58	4.23	0.54	3.78	0.67	30.36***	0.000	①-② ①-③ ①-④ ②-④ ③-④
승인감	용납	3.30	0.62	3.82	0.52	3.90	0.54	3.94	0.60	3.84	0.59	7.35***	0.000	①-② ①-③ ①-④
	긍휼	3.35	0.48	3.69	0.55	4.02	0.54	4.27	0.42	3.98	0.57	19.35***	0.000	①-③ ①-④ ②-④ ③-④
	승인감	3.32	0.46	3.75	0.48	3.96	0.46	4.10	0.45	3.91	0.51	15.72***	0.000	①-② ①-③ ①-④ ②-④
통제감	영향력	2.81	0.41	3.28	0.54	3.65	0.63	4.05	0.62	3.63	0.70	24.38***	0.000	①-③ ①-④ ②-④ ③-④
	섭리	2.75	0.55	3.42	0.65	3.76	0.70	4.27	0.62	3.75	0.79	28.98***	0.000	①-② ①-③ ①-④ ②-④ ③-④
	통제감	2.78	0.45	3.35	0.57	3.71	0.63	4.16	0.58	3.69	0.71	30.31***	0.000	①-② ①-③ ①-④ ②-④ ③-④
하나님 표상		3.01	0.36	3.54	0.49	3.82	0.51	4.16	0.48	3.79	0.59	31.09***	0.000	①-② ①-③ ①-④ ②-④ ③-④

*** p<.001

<표 9> 기독교 여대생의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하나님 표상

구 분		안정형 (n=62)		집착형 (n=33)		거부 회피형 (n=39)		두려움 회피형 (n=51)		전 체 (n=185)		F	p	Scheffe
		M	SD	M	SD	M	SD	M	SD	M	SD			
소속감	현존	3.68	0.74	3.56	0.73	3.89	0.79	3.39	0.79	3.62	0.78	3.40*	0.019	③-④
	도전	4.03	0.60	3.85	0.69	4.11	0.60	3.74	0.65	3.94	0.64	3.36*	0.020	-
	소속감	3.86	0.63	3.71	0.67	4.00	0.66	3.56	0.67	3.78	0.67	3.77*	0.012	③-④
승인감	용납	4.04	0.55	3.79	0.50	4.00	0.55	3.50	0.59	3.84	0.59	10.39***	0.000	①-④ ③-④
	긍휼	4.08	0.49	3.99	0.62	4.06	0.61	3.77	0.58	3.98	0.57	3.31*	0.022	①-④
	승인감	4.06	0.46	3.89	0.51	4.03	0.49	3.63	0.49	3.91	0.51	8.39***	0.000	①-④ ③-④
통제감	영향력	3.73	0.67	3.56	0.77	3.70	0.68	3.49	0.71	3.63	0.70	1.31	0.274	-
	섭리	3.81	0.71	3.68	0.84	3.99	0.51	3.55	0.80	3.75	0.79	2.65	0.050	-
	통제감	3.77	0.65	3.62	0.77	3.85	0.72	3.52	0.73	3.69	0.71	1.98	0.118	-
하나님 표상		3.90	0.53	3.74	0.61	3.96	0.58	3.57	0.59	3.79	0.59	4.41**	0.005	①-④ ③-④

* p<.05, ** p<.01, *** p<.001

현존과 도전, 소속감은 거부 회피형이 가장 높았고, 두려움 회피형은 다른 유형보다 낮았으며,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용납과 긍휼, 승인감은 안정형이 가장 높았고, 두려움 회피형은 다른 유형보다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영향력과 섭리는 안정형이 가장 높았고, 두려움 회피형은 다른 유형보다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통제감은 거부 회피형이 가장 높았고, 두려움 회피형은 다른 유형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표상은 거부 회피형이 가장 높았고, 두려움 회피형은 다른 유형보다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4. 성인애착과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

기독교 학생의 성인애착과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성인애착과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

구분	소속감				승인감		통제감			하나님 표상
	현존	도전	소속감	용납	긍휼	승인감	영향력	섭리	통제감	
애착 불안	-0.231** (0.002)	-0.210** (0.004)	-0.235** (0.001)	-0.381*** (0.000)	-0.225** (0.002)	-0.348*** (0.000)	-0.178* (0.016)	-0.196** (0.008)	-0.195** (0.008)	-0.270*** (0.000)
애착 회피	-0.051 (0.489)	-0.064 (0.388)	-0.060 (0.415)	-0.272*** (0.000)	-0.097 (0.187)	-0.214** (0.004)	-0.051 (0.487)	-0.006 (0.934)	-0.029 (0.699)	-0.096 (0.192)
성인 애착	0.009 (0.905)	0.088 (0.233)	0.047 (0.522)	0.121 (0.101)	0.133 (0.072)	0.145* (0.049)	0.088 (0.234)	0.072 (0.329)	0.083 (0.260)	0.094 (0.204)

* p<.05, ** p<.01, *** p<.001

애착불안은 현존과 도전, 소속감, 용납, 긍휼, 승인감, 영향력, 섭리, 통제감, 그리고 하나님 표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기독교 학생들은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현존과 도전, 소속감, 용납, 긍휼, 승인감, 영향력, 섭리, 통제감, 그리고 하나님 표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회피는 현존과 도전, 소속감, 긍휼, 영향력, 섭리, 통제감, 그리고 하나님 표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용납과 승인감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기독교 학생들은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용납과 승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인애착은 현존과 도전, 소속감, 용납, 긍휼, 영향력, 섭리, 통제감, 그리고 하나님 표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승인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기독교 학생들은 성인애착이 높을수록 승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닫는 글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와 가톨릭을 종교로 가진 여대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표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하나님의 표상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인애착유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여대생들의 성인애착유형은 어떠한가를 알아본 결과, 성인애착유형으로 안정형인 학생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두려움 회피형 27.6%, 거부 회피형 21.1%, 집착형 17.8% 순으로 나타나 성인애착유형으로 안정형이 가장 많았으며, 학년과 전공, 신앙년수, 부모님 신앙 여부, 회개경험, 구원확신, 그리고 예배참석 정도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기독교 여대생들의 하나님 표상은 어떠한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신앙년수와 부모님의 신앙여부, 회개경험, 구원확신, 예배참석 횟수 등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신앙년수에 따라 하나님 표상을 살펴본 결과, 모태신앙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현존과 도전, 소속감, 긍휼, 영향력, 섭리, 통제감, 그리고 하나님 표상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님 신앙 여부에 따라, 부모님 모두 믿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소속감과 영향, 섭리, 그리고 통제감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하나님 표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김난예의 연구와 다른 결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할 단초를 제공한다. 회개 경험과 구원확신이 있으면서 예배참석 정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현존과 도전, 소속감, 용납, 긍휼, 승인감, 영향력, 섭리, 통제감, 그리고 하나님 표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독교 여대생들의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하나님표상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독교 여대생의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하나님 표상을 살펴본 결과, 거부 회피형이 다른 유형보다 현존과 도전, 안정형이 다른 유형보다 용납과 긍휼, 그리고 승인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 표상 하위요인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용납이다. 진정한 자아상은 대상과의 관계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하나님 표상은 자아-대상 관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소속감(임재-격려), 승인감(용납-긍휼), 통제감(영향력-섭리)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성인애착유형의 안정형이 하나님 표상이 높고 특히 용납차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독교 상담에서 성인애착유형과 하나님 표상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에게 성인의 애착유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의 하나이므로 애착관계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상담관계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애착유형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상담과정에서 작업동맹을 촉진시켜 조기종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일어나는 내담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내담자들의 애착유형에 맞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기독교 대학생을 상담할 경우 성인애착유형과 하나님표상의 관계성을 검토하

여 왜곡된 하나님 표상을 가진 학생들에게 안정된 애착을 유도하는 작업이 유용함을 시사한다. 이는 곧 왜곡된 하나님 표상을 가진 학생들에게 자신의 애착형태를 인식시킴으로써 애착불안이나 애착회피의 유형을 안정애착유형으로 발전시키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과 삶의 태도 등을 교정하여 건강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추후연구에 대하여 제언을 하면 성인애착유형을 기독교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에 있어서 일반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며, 하나님 표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인지적 편향이나 대인관계형성과의 관계를 파악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난예. “기독교와 가톨릭 학생들의 하나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신앙과 실천」. (2002): 275-305.

김난예. 하니님 표상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40(4)(2002): 47-69.

김사훈. “내면화 과정과 하나님이미지 형성간의 관계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5.

김성현 “친밀관계경험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박강희. “하나님의표상과 하나님 경험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박민수. “하나님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1.

연선화. “대상관계이론에서 본 아동기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관한 실례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대학원, 1997.

이해리. “심리치료에서의 종교와 하나님 표상에의 접근 「상담학연구」. 5(4)(2004), 1293-1310.

이혜진. “애착의 세대간 전이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학생생활상담」. 제7집(2002): 23-43.

장휘숙. 성인 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1997): 123-138.

최인석. “유아기 심리적 경험과 성인의 하나님 표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홍래경. “애착유형에 따른 하나님 이미지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 2000.

황혜리 · 김미경. 기독교인의 하나님 이미지와 비합리적 신념의 상관관계. 「상담학연구」 4(4)(2003): 867-881.

Anderson, P., Beach, S. R., & Kaslow, N. Marital discord and depression: The potential of attachment theory to guide integrative clinical intervention. In T. Joiner Z& J. Coyne (Eds), The international nature of depression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9.

Barret, P. M. & Holmes, J.. Attachment relationships as predictors of cogmitive interpretation and response bias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0, 51-64. 2001.

Bowlby, J. *Attachment and loss*. Vol.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1980.

_____.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2nd ed.) New york: Basic

books. 1982.

_____. Developmental psychiatry comes of ag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 1-10. 1998.

Collins, N. 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Implication for explanation, emotion,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10-832. 1996.

Collins, N. L., Guichard, A. C., Ford, M, B., Feeney, B. C.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In Rholes. S & Simpson, J. A, *Adult Attachment*. New York: Guilford Press. 2004.

Feeny, B. C., & collins, N. L. Predictors of caregiving in adult intimat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972-994. 2001.

Fraley, R. C., & Shaver, p. r. Airport separations: A naturalistic study of adult attachment dynamic in separ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198-1212. 1998.

Fraley, R. C., Waller, N. G.,& Brennan, K. A.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 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2000.

Hazen, C., Gur-Yaish, N. & Campa. *What does it mean to be attached?* In Rholes. S & Simpson, J. A, *Adult Attachment*. New York: Guilford Press. 2004.

Lan T. Birky, Samuel Ball. Parental trait influence on God as an object representat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122(2), 133-137. 2001.

Lawrence R. T. Measuring The image of God: the God image inventory and the God image scald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2), 214-226. 1997.

Lopez, F. G., & Brennan, K. A. Dynamic proces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and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83-300. 2000.

Marsh, H. W. Global self-esteem: Its relation to specific facets of self concept and their impor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24-1236. 1986.

Mikulincer M., Gillath, O., & Shaver, P. R. Activation of the attachment system in adulthood: Threat-related primes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ment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fig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881-895. 2002.

Mikulincer, M. Adult attachment styl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functional versus dysfunctional experiences of ang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513-524. 1998.

Mikulincer, M., & Daphna, A..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cognitive openness in close relationships: A test of chronic and temporary accessibilit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al Psychology*, 61, 321-331. 1999.

Prosi, A., & D'Argenio, A.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depression in a clinical sample of young men: The role of insecure attachm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9, 269-272. 2004.

Rizzuto, Ana-Maria. *The birth of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Shaver, P. R., Belsky, J., & Brennan, K. A.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nd self-reports of romantic attachment: associations across domains and methods. *Personal Relationship*, 7, 25-43. 2000.

Shaver, P. R., Collins, N., & Clark, C. L. *Attachment styles and internal working models of self and relationship pattern*. In Fletcher & Fitness.(Eds.), *Knowledge structures in close relationships*. Hillsdale, NJ: Erlbaum.

1996.

Simonelli, L. E. Ray, W. J., Pincus, A. L. Attachment model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anxiety, worry, and depression. *Counseling & Clinical Psychology Journal*, 1, 107-119. 2004.

Wei, M., Vogel, E. L., Ku, T. Y., & Zakalik, R. A.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52, 14-24. 2005.

Zhang, F., & Hazen, E.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nd person perception process. *Personal Relationships*, 9, 225-235. 2002.

후주

1) Karl H. Brisch, *Treating Attachment Disorders : From Theory to Therapy*, 장휘숙 역, 「애착장애의 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3), 17.

2) 이혜진, "애착의 세대간 전이에 관한연구," 성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상담」 제7집(2002, 11): 23.

3) Parkers, C. M., "Separation anxiety: An aspect of the search for a lost object," Studies of Anxiety, M. H. Leader, (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9): 881-95.

4) Bartholomew, K., Horowitz, L. M.,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1): 226-44.

5)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ed intervew,"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J. A. Simpson & W. S. Rholes (eds.) (New York: Guilford, 1998): 46-76.

6) Zhang, F., & Hazen, E.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nd person perception process*. Personal Relationships (2002): 225-35.

7) Wei, M., Vogel, E. L., Ku, T. Y., & Zakalik, R. A.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2005): 14-24.

8) Bowlby, J., “attachment, communication, and the therapeutic process,"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b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eds.) (1998): 46-76.

9)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0권(2001): 105-19.

10) 김난예. “기독교와 가톨릭 학생들의 하나님 이미지에 관한 연구,”「신앙과 실천」 제30권(2002, 12): 277.

11) Ana-Maria Rizzuto, *The birth of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79), 90-1.

12) 이해리, “심리치료에서의 종교와 하나님 표상에의 접근,” 한국상담학회,「상담학연구」 제5권(2004, 12): 129-310.

13) 김난예, “하나님 표상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회,「교육학연구」 제40권(2002, 8): 50-1.

14) 김시훈, “내면화 과정과 하나님이미지 형성간의 관계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5).

15) 장휘숙, “성인 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발달」 제10권(1997, 6): 123-5.

16) 황혜리, 김미경, “기독교인의 하나님 이미지와 비합리적 신념의 상관관계,” 한국상담학회,「상담학연구」 제4권(2004, 12): 869.

17) Edwards, K. J., Brokaw B. F., “The relationship of God image to level of object relations develop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994): 227-39.

18) Rowatt, W., Kirkpatrick, L. A., “Two dimentions of attachment God and their relation to affect, religiostiy, and personal construct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002): 637-51.

19) 이은실, “학습자의 하나님 개념이해: 문헌분석,”「기독교교육정보」 제1권(2000): 188-218.

20) 최인석. “유아기 심리적 경험과 성인의 하나님 표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21) 홍래경. “애착유형에 따른 하나님 이미지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 2000).

22) 정석환, Attachment theory and relationship with God. *Theology and Culture*. (2002): 87-103.

23) 이해리, “심리치료에서의 종교와 하나님표상에의 접근,” 한국상담학회,「상담학연구」 제5권(2004,12): 129-310.

24) 김성현 “친밀관계경험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25) 김난예, “하나님 표상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교육학연구」 제40권(2002, 12): 47-69.

KCI

Abstract

Relationship of Adult Attachment Style to the Image of God in Female Undergraduate Christians

Hey-Jin Yi
(Ed.D., Sungyul University)
Eun-Jung You
(Ed.D., Baekseok Collegeof Cultural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n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understanding of female undergraduate Christians and Catholics about the image of God and the relationship of their image of God to their adult attachment styl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85 students at five selected colleg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research questions pos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What is the adult attachment style of female college Christians?
2. What is their image of God?
3. What is the impact of their adult attachment style on the image of Go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below:

A stable adult attachment style was most prevailing among the female college Christians investigated, and their image of God varied with their years of believing in Christianity, the faith of their parents, their repentance experience, conviction of salvation and frequency of attending service. As for connections

between their adult attachment style and the image of God, the female college students whose adult attachment styles were rejective and avoidant were ahead of the others who had a different adult attachment style in terms of conviction of the presence of God and challenging spirits, and those who had a stable adult attachment style excelled the others with a different adult attachment style in tolerance, compassion and goodnes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help counselors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ttachment styles of adults and to improve the way of looking at relations between counselors and clients. Also,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in the event of providing counseling to Christian college students, it's effective in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of their adult attachment style to their image of God and in encouraging students with a biased image of God to be stably attached to him. Finally, suggestions about future research efforts were made.

Key words: female undergraduate Christians, attachment, adult attachment style, the image of God, Christian counseling